"AI 시대일수록 더 깊이 읽고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한승원 작가·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대담

장흥 해산토굴서 미래 교육 지혜 모아

韓 "아이들 손에 책을" 독서·사유 강조

金 "독서·글쓰기 학생 주도 수업 안착"

"AI 시대일수록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로 써야 합니다."

최근 장흥군 '해산토굴'에서 이뤄진 현대문학의 거장 한승원 작가와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만남의 자리에서는 AI시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있는 교육 담론이 펼쳐졌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김 교육감이 학창 시절부터 존경해 온 한 작가와 마주앉아 전남광주 미래 교육에 지혜를 모은 뜻 깊은 자리였다.

김 교육감은 투병 중에도 장흥 교육과 남도 후학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언을 아끼지 않은 한 작가의 손을 잡으며 각별한 감사와 안부를 전했다.

대담에서 한 작가는 AI시대 독서 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 작가는 "세종대왕께서 백성의 말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훈민정음을 펴내셨듯, 오늘날 교실에서 활자의 온기를 되찾는 일은 아이들에게 생각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라며 "영상과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에 갇혀 모국어의 아름다움과 사유의 힘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손에 학교와 가정이 다시 책을 쥐어 주어야만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작가는 공부(工夫)의 어원을 풀어내며 "하늘(一)과 땅(一)의 가르침을 아우르고(丨) 이를 온전히 통달한 사람(夫)이 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며 입시 기술 습득에 매몰된 교육을 경계했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현대인의 삶과 미래 교육은 AI의 노예가 되느냐, 그것을 지배하며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계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아이들 스스로 깊이 사유하고 자신의 고유한 문장을 짓는 문학적 창작 교육이 공교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문학의 거장 한승원 작가와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최근 장흥군 '해산토굴'에서 대담을 갖고 AI시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전남광주 미래 교육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이에 김 교육감은 과거 만남에서 "AI 시대일수록 더 깊이 읽고 쓰는 인문교육이 뿌리가 돼야 한다"고 일깨운 스승의 가르침을 현재 장흥 '노벨문학작가학교'로 그 철학을 담아내고 창작 교육의 거점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스승님께서 남겨주신 세 가지 조언은 전남광주교육청이 나아갈 미래 교육의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라며 "단순한 디지털 기기 보급 중심의 미래 교육을 넘어, 탄탄한 독서와 문해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삶을 창작하는 주체적 인재를 기르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승원 작가는 대담을 마치며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교육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현장 교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김대중 교육감은 "스승님의 뜻을 이어 초·중·고 교육 과정 전반에 독서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한 학생 주도성 수업을 안착시키겠다"며 "장흥 노벨문학작가학교를 중심으로 남도의 생태·인문 자산과 연계한 독서인문 교육을 확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100여개 기업·기관 참여 'CSU 취업진로페스타'

조선대·광주관광공사, 내일 공동 개최

채용·직무 상담부터 동문 멘토링까지

조선대학교가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내 체육대학 1층 체육관에서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2026 CSU 취업진로페스타'를 개최한다.

취업진로페스타는 조선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취업·진로 축제로 약 10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직무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삼성, 넥센타이어, 쿠팡,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폭넓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은 ▲기업상담 ZONE ▲동문멘토링 ZONE ▲취업지원 ZONE ▲이벤트 ZONE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상담 ZONE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와 현직자들이 채용 정보와 직무별 취업 준비 방법을 안내하며, 동문멘토링 ZONE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동문 선배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한다. 취업지원 ZONE에서는 정부·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특히 취업 분야 인기 유튜버 '면접왕 이형'의 특별강연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진행되는 특강에서는 'AI 시대 취업의 정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채용 환경의 변화와 취업 준비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품 이벤트도 준비됐다. 행사장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향기테라피, AI 취업사진, 취업타로 등 취업 준비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스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모으면 푸드트럭 이용권과 경품 추첨 기회가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3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번 페스타는 대학혁신지원사업(학생 진로·취업 역량 강화), 앵커사업(지역 연계 인재 양성), 글로컬대학 사업(지역 청년 정착 지원)이 각 사업의 고유 목적을 살리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취업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광주관광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성 조선대 취업학생처장은 "기업 인사 담당자와 현직자, 동문 선배를 한자리에서 만나 진로와 취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초·중등 과학영재 신입생 모집

전남대 과학영재교육원, 16-23일 접수

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2027학년도 과학영재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초등 심화과정(융합) 30여명과 중등 심화과정(과학/수학/SWAI) 80여명, 중등사사 I 과정(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SW·AI) 18여명 등 140여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해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先)교육 전형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선(先)교육 전형의 대상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영재교육기관 이수자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전남광주시 학생들로 초등·중등 심화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중등사사 I 의 경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교사의 추천(일반·특별전형)이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대상자는 분야별 선발 인원의 10% 안팎을 정원 외로 선발한다.



초등·중등 심화과정 선발은 자기주도적 탐구능력 검사와 면접을 통해 영재성과 잠재적 발전가능성 등의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중등사사 I 과정은 자기평가서 및 연구계획서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또한 지역 내 사회통합대상 영재아 발굴을 위해 사회통합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심화, 사사 I 과정 9명 선발)도 시행된다.

앞서 지난 10월17일 열린 입학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사진〉

관심 있는 과학영재들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전남대 과학영재교육원 선발사이트(http://jnucsge.gidea.co.kr)에서 응시원서와 교사 추천서 등 필요 서류를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제13회 전남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개최

오는 10-13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0-13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제13회 전남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에는 전남권역 48개 학교에서 약 1천820명의 학생이 참여해 음악과 예술로 하나 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오케스트라와 복합 장르 공연으로 나눠 진행된다.

10일부터 12일까지 예울마루 대극장에서는 표준오케스트라, 윈드오케스트라, 국악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펼쳐진다. 이어 13일에는 소극장에서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장르 공연이 진행돼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쌓아 온 협력과 소통의 경험을 무대 위에서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를 이뤄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하듯 학생들은 함께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해 왔다.

전성아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 낸 성취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며 "학생 누구나 학교 안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예술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